

전사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발행인 근로자위원 대표 이현우 / 발행일 2026년 8월 19일(수) / 배포확인 금속노조 만도지부 / 제 03호

2026년 긴급 전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차 회의

- 장소 : 평택사업본부 본관 2층
- 일시 : 2026년 8월 18일(화) 14시 ~ 14시07분
- 참석 : 이현우 근로자위원 대표 외 7명, 조성현 대표이사 외 8명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권한’을 따집니까

회사는 3차, 4차 회의에서 안을 내놓으며 ‘최대치의 안’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만도지부가 뜯어본 결과는 전혀 달랐다. 최대치는커녕, 세 번째 안에 이르러서도 회사는 여전히 눈치만 보며 말을 바꿨다. 5차 회의가 열리기까지 그 안만을 고수했다.

벌써 다섯 번째 회의다. 다섯 번의 기회를 주고도 가장 절박한 두 가지 요구조차 담아내지 못하는 회사라면, 이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장 시급한 1번 안전의 위험설비에 대한 작업중지 조항은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노사공동으로 안전조치를 즉시 실시한다’는 문구로 얼버무렸을 뿐, 위험이 확인된 설비를 실제로 멈춰 세우겠다는 약속은 어디에도 없다. 6번 중간관리자 투입 금지 조항 역시 ‘최소한으로 노력한다’는 말 그대로다. 다섯 번의 회의를 거치고도 단 한 글자도 전진하지 않았다.

이것은 대책이 아니라 임시방편이다

회사는 채용 시점을 못박은 안을 내놓았다. 평택사업장 부족한 보전인력은 11월까지, 익산사업장 기능직 부족인력은 2027년 1월까지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얼핏 진전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적정인력 유지 대책’이라 부를 수 없다.

매년 100여명씩 정년퇴직을 하는 상황에, 회사의 안은 지금 이 상황만 넘기려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적정인력을 체계적으로 산정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고용과 신규채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는 ‘인력운영은 회사의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회사가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합에 사전 통보 후 설명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 협의도, 합의도 아닌 ‘통보 후 설명’이다.

사람이 죽었는데 아직도 권한을 따지는 것이 말이 되는가. 전사에 걸쳐 적정인력을 산정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재고용과 신규채용을 실시하라. 대책다운 대책을 가져오라.

사측안의 실제

회사는 세 번째 안에서도 중간관리자의 생산라인 투입을 전면 금지하지 못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고수했다. 이 대목에서 오히려 회사의 속내를 읽는다. 중간관리자까지 동원해야 라인이 돌아간다는 것은, 회사 스스로 현장 인력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이다.

사람이 없어서 중간관리자까지 라인에 밀어넣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답은 명확하다. 중간관리자를 붙잡아 두는 미봉책이 아니라, 애초에 사람을 제대로 채용하는 것이 답이다. 6번안을 '노력'이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것 자체가, 2번안의 부실함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인력이 부족하니 중간관리자를 투입하고, 인력을 채우자니 원주는 빼고 보전직만 짚끔 채우겠다는 것처럼 이 모순된 그림이 바로 회사가 말하는 '최대치의 안'의 실체다.

이것은 한 번의 구멍이 아니라, 계속되는 흐름이다

사고 이후 노동조합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끈질기게 짚어온 것이 인력문제다. 사고의 배경을 하나씩 따라가다보면 결국 사람이 부족했다는 사실과 마주한다. 이 단순한 근본 원인을 회사만 애써 외면하고 있다.

매출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지만, 2012년 2260여명에 달하던 현장 인원은 약 1300명만이 남아 있다. 3명이 하던 일을 2명이 하고, 2명이 하던일을 1명이 하고, 그마저도 부족하니 아웃소싱을 해왔다. 인원의 공백은 결국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져, 크고 작은 산업재해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 지금도 매년 약 100명이 정년으로 현장을 떠나고 있다. 이것은 한번 채용하면 끝나는 구멍메우기가 아니라, 매년 반복되는 흐름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신규채용과 함께, 정년퇴직자 재고용을 함께 요구해왔다.

진심으로 회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재고용이 아닌 신규채용밖에 없다면, 부족한 인력은 당장 충원하고, 매년 정년퇴직하는 인원만큼 신규채용하라 !

현장의 목소리와 관심이 힘이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집행부는 여름 휴가를 반납하고 이 싸움을 이어왔다. 회사가 새벽에 몰래 라인을 가동하려 했을때도, 간부들이 철야하며 막아섰다. 그 절박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회사가 과도한 요구라는 말 뒤에 숨어 시간을 끄는 한, 매년 100명씩 빠져나가는 공백은 그대로 남는다. 그 부담은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이것은 몇몇 조합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다.

만도지부는 이 이상의 안은 권한의 문제라 판단하고, 5차 산보위 회의에서 정몽원 회장과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